

볼커 튀르크 UN 인권 최고대표 “민주주의 원칙 헌법 명시를”

국립5·18묘지 참배...“큰 울림 주는 기억의 공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양극단 논쟁 문제 아냐”

볼커 튀르크 UN 인권 최고대표가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민주주의의 이념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볼커 튀르크 대표는 14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을 참배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5·18 민주묘지는 큰 울림을 주는 기억의 공간”이라며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잃은 분들을 추모하는 장소에서 기억을 이어가고 있는 가족과 생존자들의 강인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 잠든 오월 영령의 희생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며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자유, 공정, 정의를 위해 희생된 분들도 잊어서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적

분쟁과 갈등을 마주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모습도 목격하고 있다”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평화는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를 근거로 해야 하며, 광주 기억은 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고 강조했다.

볼커 튀르크 대표는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대응세상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또 “자유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일들이 많은 시기에 광주의 기억은 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며 “이런 추모의 장소는 여러 억압과 맞서 싸운 일들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고 집단을 기억해 보존하는 만큼 이번 방문이 매우 뜻깊다”고 언급했다.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에서는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행동은 굉장한



볼커 튀르크 UN 인권 최고대표가 14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을 참배한 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울림을 준다고 답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분들을 자주 보고 있다”며 “특히 광주 5·18은 지역 내 공동체가

서로를 돕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희생정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희생정신이 뒤따르고 있다”며 “최근 수단에서 일

어난 혁명 과정에서도 여성들이 시위대에 차(Tea)를 제공하는 희생정신을 보았는데, 5·18 광주 공동체가 시민군과 주먹밥을 나누고 헌혈에 동참한 것과 같

은 양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인권의 원칙은 전 세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UN 인권사무소는 이러한 방향을 옹호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니다. 인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공감대를 느껴야 하는 사회의 기본이다. 양극단이 논쟁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쟁에 대해서는 “광주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국민의 정당한 불만에 대해서는 절대 폭력이나 억압이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까나”고 말했다.

한편, 광주인권포럼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볼커 튀르크 대표는 민주묘지 참배 과정에서 ‘시민군 대변인’ 고 윤상원 열사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속 주인공 동호의 실존 인물인 고 문재학 열사의 묘소를 찾았다.

글=사진=이산하 기자 goback@

여수시, 공직자 대상 ‘우리 섬 바로 알기’ 현장교육 확대

섬 누비며 섬박람회 홍보 환경정비 봉사활동 실시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우리 섬 바로 알기’ 교육을 단순 체험형 교육을 넘어 현장 중심 실천형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우리 섬 바로 알기’ 교육은 공직자들이 여수의 섬을 직접 보고, 걷고, 체험하며 섬의 가치와 지역 자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현장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화정면(개도·낭도·화화도), 삼산면 거문도, 남면 금도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 직원들은 해안가와 관광지 주변 쓰레기 수거, 환경정비 등 봉사활동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우리 섬 바로 알기’ 교육을 단순 체험형 교육을 넘어 현장 중심 실천형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등을 통해 깨끗한 섬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젊은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직원들은 섬 현장에서의 활동 모습과 각 섬의 매력을 SNS 등을 통해 공유하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에도 동참

하고 있다. 또 선·후배 직원 간 팀별 활동과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 내 소통과 협업 문화 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섬박람회의 성공은 시민 공감과 현장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

다”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직원들이 먼저 섬의 가치를 직접 느끼고 행동으로 실천하면 현장 중심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해 섬박람회의 성공 개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14일 광주렌트카사업조합, 전국렌트카공제조합과 함께 광주공항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렌트카 안전캠페인 광주공항...광주렌트카사업·전국렌트카공제조합 동참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14일 광주렌트카사업조합, 전국렌트카공제조합과 함께 광주공항에서 렌트카 이용자 대상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렌트카 이용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관은 △교통안전 홍보 용품 배부 △안전띠 착용 및 제한속도 준수 홍보 △졸음·음주운전 예방 안내 △렌트카 이용자 시안전수칙 안내 등에 나섰다.

또 최근 렌트카 교통사고 중 야간시간대 및 초행길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 사례를 안내하며, 방어운전과 규정속도 준수

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여기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광주렌트카사업조합, 전국렌트카공제조합은 렌트카 교통안전 문화 확산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형섭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은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욱 광주렌트카사업조합 이사장 역시 “렌트카 이용자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안전 운전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념 선거기록전시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선관위, 6·3지선 기념 선거기록전시회 개최 선거정보알림벽·역대 선거 사진 등 선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념 선거기록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회는 다음달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전시회는 선거정보알림벽과 역대 선거 사진·과거 선거자료 전시로 구성됐다.

선거정보알림벽에는 이번 지방선거 관련 선거정보, 투표방법 및 절차, 지방선거 투표용지 가이드, 대한민국 선거사,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등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망라해 방문객 누구나 한눈에 쉽게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

록했다. 역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 벽보·과거 선거 포스터 등 선거 사료 모형을 살펴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 선거 역사의 현장감을 담은 과거 선거 현장 사진과 대한민국 선거 사진 공모전 수상작,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유권자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은 다문화 유권자 사회작품도 선보인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기록전시회가 시민들이 선거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고,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방선거 전까지 광주 시민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



고흥군은 최근 질병관리청 주관 ‘2026년 국가예방접종사업 평가’에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은 공영민 고흥군수(왼쪽 네번째)가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장 표창 수상 후 보건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모습.

고흥군, 국가예방접종 질병관리청장 표창 수상 전남 유일...지정의료기관과 협력 구축 호평

고흥군이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국가예방접종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군은 질병관리청 주관 ‘2026년 국가예방접종사업 평가’에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예방접종을 향상과 체계적인 접종 관리,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 조성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전남 지역 22개 지자체 가운데 고흥군이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군은 영유아와 어르신 대상 국가예방접종을 비롯해 취약계층 접종 지원과 미접종자 관리 등 군민 중심의 맞춤형 예방접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역 내 지정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접종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왔다.

특히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주요 예방접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며 고흥형 감염병 예방에 힘

써 왔고, 안전한 접종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체계 운영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뜻깊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예방접종을 향상과

감염병 예방체계 강화를 통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세마을문고광주동구지부는 최근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원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교육관계자 응원 캠페인을 전개했다.

세마을문고 광주동구지부, 스승의 날 응원 캠페인

세마을문고광주동구지부는 최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관계자 응원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교원에 대한 감사와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으며, 세마을문고 회원들과 학원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참여했다.

신동식 세마을문고광주동구지부 회장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행사에 참여해 준 회원들과 학원초 학부모들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

이들은 선생님고 교육관계자를 위한 응원 캠페인을 펼치며 학생들과 작성한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교원실을 찾아 선생님들을 격려하며 응원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도 전했다.

△고법서 전남경찰청장

본사방문